

【서평】

얻은 것과 잃은 것

백종현의 『순수이성비판』, 『실천이성비판』, 『윤리형이상학 정초』에
대한 서평

최 소 인*

I. 칸트 철학의 역사를 새롭게 쓰다

2006년 6월 백종현에 의해 『순수이성비판』이 새롭게 번역되어 출간되었다. 그동안 『순수이성비판』의 정역본으로 널리 읽혀오던 최재희의 『순수이성비판』이 출간된 후 3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뒤의 일이다. 이전의 번역서는 일본식 용어와 문체, 쓰이지 않는 한자어 및 이미 통용되지 않는 낡은 표현법, 그리고 적지 않은 오역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학문 후속 세대들의 칸트이해를 돕기 보다는 오히려 이해를 가로막는 장애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롭게 출간된 백종현의 『순수이성비판』은 출간한 지 2달 만에 2쇄를 찍는 — 전문 학술서로서는 생각하기 힘든 — 쾌거를 이룩하였으니, 『순수이성비판』의 새로운 번역서에 대한 요구가 얼마나 팽배해 있었나를 실감할 수 있다.

『순수이성비판』의 출간에 앞서 백종현은 이미 2002년 9월에 『실천이성비판』을, 그리고 2005년 8월에 『윤리형이상학 정초』를 새롭게 번역하여 출간하였다. 한 사람의 전문 칸트연구자에 의해 칸트의 주

* 영남대학교 철학과

요저서들이 다시 번역된다는 것은 시대의 요구에 맞는 새로운 번역서의 출간 못지않게 주목할 만한 일이다. 만일 서로 다른 칸트연구자들에게 의해 번역되었다면 저서들 사이의 용어상의 통일이나 번역 원칙의 통일 등을 기대할 수 없었을 것이며, 통일성이 결여된 저서들에 의해 독자들은 칸트사상 전체의 개요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여러 장애물들과 싸워야 했을 것이다.

우리 학계에서는 번역 업적을 그리 높게 평가하지 않는 편이며, 어떤 경우 한편의 논문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러나 어떤 사상 체계이든 그 사상 체계의 연구의 토대가 되는 것은 사상이나 사상이 남긴 저술이다. 그러므로 원전의 번역은 그 어떤 저서나 논문보다 그 생명이 긴, 가장 기초적이며 중요한 학문적 업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원전의 번역이 선행하지 않을 경우 우리의 문화와 사상 체계 속에 도착화된 연구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일련의 새로운 번역서들의 출간은 1세기가 넘는 우리나라의 칸트 연구를 한 단계 고양시킬 수 있는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러나 백종현에 의해 이루어진 칸트 저작들의 번역은 새로운 번역에 대한 수요와 기대가 컸던 만큼 번역서의 정역 시비 역시 작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새로운 번역서는 이전의 낡은 용어들과 오역에 해당하는 구절들의 전면적인 개정을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의 번역서의 근본문제들은 수정되었으며 번역서는 독자들이 읽기 쉬운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개정된 새로운 용어나 번역이 학계의 검증 절차 없이 독자층에게 무반성적으로 수용되고 유포되는 일이다. 전문학술서의 경우 옳긴이가 미처 잡아내지 못한 오역 등을 찾아내고, 개정한 번역용어의 적합성 여부를 — 문헌학적이며 훈고학적인 지식을 갖춘 학자들로 이루어진 — 전문학술가 집단의 비판을 고려하여 계속적으로 교정해 나가는 작업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개정본이 연구에 활력소가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될 수도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직 학자 개인의 주관적 판단과

규준에 의해 모든 일을 검사하고 결정하는 닫혀진 권위가 아니라 모든 비판과 질타에 대해 열려있는 태도를 기대하면서 번역서가 가진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¹⁾

II. 오역 없는 번역은 불가능하다

1. 잘못 번역된 구절들²⁾

『순수이성비판』

A 77/B 102: 그런데 공간·시간은 선험적인 순수직관의 잡다를 내용으로 갖고, 그럼에도 우리 마음의 수용성의 조건들에 속하며, 그 조건들 아래에서만 대상들의 표상들이 주어질 수 있다(Raum und Zeit enthalten nun ein Mannigfaltiges der reinen Anschauung a priori, gehören aber gleichwohl zu den Bedingungen der Rezeptivität unseres Gemüts, unter denen es allein Vorstellungen von Gegenständen empfangen kann, ...). 여기서 독어 원문은 학술원판, R. Schmidt판, Weischedel판(Darmstadt 간행) 모두 동일하다. 그러나 번역서에는 원문에 없는 ‘내용으로’ 라는 말이 임의로 삽입되었거나 혹은 보통의 경우 *enthalten*은 ‘함유하다’로 번역하지만 이 구절에서는 ‘내용으로 갖다’고 번역한다. 백종현은 문맥에 따라 *enthalten*을 이처럼 가끔씩 ‘내용을 갖다’라고 번역하곤 한다. 그러나 이 구절의

-
- 1) 여기서 지적된 번역 상의 문제점들은 물론 서평자의 오해나 오독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으며, 어떤 부분들은 오류나 결함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적인 의견의 차이에 불과한 것일 수도 있음을 먼저 말해둔다.
 - 2) 세 번역서를 모두 원문과 상세히 비교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기에 번역서를 읽어 나가면서 눈에 띄는 구절들만을 원문 대조하였음을 밝혀둔다. 물론 여기에 언급한 구절 말고도 사소한 오역들이 눈에 뜨지만 지면상 생략한다. 그리고 김수배도 『윤리형이상학 정초』번역본의 문제점을 몇 군데 지적하고 있다(김수배 ‘고전번역비평(51) 임마누엘 칸트 『도덕형이상학 기초』, 교수신문, 2006년 11월 5일).

경우 ‘내용’이라는 말을 집어넣는 것은 그리 좋은, 혹은 적절한 번역은 아닌 듯하다. 그리고 ‘unter denen es ... empfangen kann’은 ‘그 조건들 아래서만 ... 주어질 수 있다’로 번역되었지만 실제로는 ‘그 조건 하에서만 우리의 마음이 ... 을 수용할 수 있다’로 번역되어야 한다.)

A78/B 104: 모든 대상들에 대한 선험적인 인식을 위해 주어져야 할 첫째의 것은 순수한 직관의 잡다이다(Das erste, was uns zum Behuf der Erkenntnis aller Gegenstände a priori gegeben sein muß, ist das Mannigfaltige der reinen Anschauung: ...). 백중현은 최재희 판과 마찬가지로 a priori를 인식을 수식하는 것으로 보고 ‘선험적 인식’으로 번역하지만 이 경우 a priori는 Erkenntnis가 아니라 부사로서 gegeben을 수식하며, 따라서 ‘모든 대상인식을 위해 우리에게 선험적으로 주어져야만 하는 첫째의 것은 ...’으로 번역되어야 한다.

『실천이성비판』

A36: 실천적 인식, (...) 에서는 우리가 스스로 만드는 원칙들이라는 것이 아직도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불가피하게 그 지배를 받는 법칙들이 아니다. 실천적인 것에서 이성은 (...) 따를 수 있으니가 말이다(In der praktischen Erkenntnis, (...) sind Grundsätze, die man sich macht, darum noch nicht Gesetze, darunter man unvermeidlich stehe, weil die Vernunft, im Praktischen ...). 여기서 darum은 내용상 우리가 스스로 만드는 원칙들에 걸리는 것으로 번역되어 있지만(즉 ‘우리가 스스로 만든 원칙이기 때문에’라는 의미로 번역) darum은 그 다음에 나오는 부문장인 weil과 연결되는 것으로 번역해야 한다.

2. 번역용어의 문제

1) 어색한 한자어의 사용

『순수이성비판』

A 77/ B 102: 통관되고 수득[受得]되어 결합되기를 요구한다. - 여기서 aufgenommen은 ‘수득’으로 번역되지만 다른 곳에서는 ‘받아들이다’로 번역된다. 따라서 이 구절도 ‘수득’이란 낱선 한자어보다는 ‘받아들여져’로 번역하는 것이 낫다.

A 107: 한낱 경험적이고, 한낱 전변적[轉變的]이다. - 이 구절에서 wandelbar는 전변적으로 번역되며 A 144/ B 183에서는 변전하는 것(des Wandelbaren)으로 번역된다. 그러나 wandelbar를 ‘전변적’ 혹은 ‘변전적’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어색하다. 게다가 명사의 경우 Wandeln을 ‘변모’로 번역하며 Wechsel을 ‘전변’으로 번역하는데 명사와 형용사 사이의 일관성이 없다. 변화에 관계하는 번역어의 경우³⁾ 독일어의 의미는 동일 혹은 유사하지만 상이한 용어는 상이한 우리말로 번역하려는 번역원칙에 의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다.

B 9: 온갖 분식[粉飾]들을 찾게 된다. - 최재희 판과 마찬가지로 Beschönigung을 ‘분식’이라는 한자어로 번역한다. 그러나 ‘분식’이라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한자어보다는 ‘장식’ 혹은 ‘장식물’ 등으로 번역할 것을 제안한다.

B 12: 서로 의속[依屬]하고 있으니 말이다. - zueinander gehören을 ‘서로 의속하다’, 즉 의존하면서 속하다는 뜻으로 번역한다. 그러나 굳이 의존하다는 의미를 강조할 이유는 없으며, 따라서 ‘서로 (공)속한다’로 번역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B 148: 직관의 대상들 일반에 궁[亘]하는데 - erstrecken sich auf를 ‘궁하다’로 번역하지만 차라리 이전의 최재희 번역인 ‘...에 미치다’가 나은 듯 보인다.

A 332/B 389: a parte posteriori를 ‘漸漸 後次的’으로, a parte priori ‘漸漸 先次的’으로 번역한다. 이 번역은 독일어를 라틴어나 희랍어와 구분하여 번역하려는 원칙에 의해 생겨난 어색한 번역이다. 마찬가지로 A 345/B 403의 Kommerzium을 교호성[交互性]으로 번역하는데, 이 번역 역시 라틴어와 독일어를 구별하기 위해 만든 용어로

3) 『순수이성비판』 146쪽 참조.

서 상호작용 혹은 상호성으로 번역하면 되는 것을 옹긴이의 원칙(역주 원칙 4번과 6번 참조)에 의해 어색한 한자어가 등장한 경우들이다.

『실천이성비판』

A66에서 *physisches Übel*을 신체적 화[禍]로 번역하지만 다른 곳에서는 해악[禍]으로 번역한다(예를 들면 A107). 동일 단어를 굳이 한번은 화로 한번은 해악으로 번역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이 번역은 옹긴이의 “칸트의 동일한 용어에는 되도록 동일한 우리말을 대응시킨다. 용어가 아닌 보통 낱말들에도 가능하면 하나의 번역어를 대응”(역주의 원칙 5)시키려는 옹긴이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윤리형이상학 정초』

B VI: 고구해 볼 만한 가치가 없지 않은 대상(*ein der Erwägung nicht unwürdiges Objekt*); *Erwägung*은 ‘고구’라는 한자어 대신 ‘곰곰히 생각하다’, ‘숙고하다’ 등으로 번역될 수 있다. 게다가 이 구절에서 이중 부정(*nicht unwürdiges*)을 살리기 위해 우리말로도 ‘가치가 없지 않은’으로 번역하지만(이처럼 이중부정의 경우 이를 살려 번역한다) 이러한 번역이 과연 칸트의 어법을 살리는 번역인지 의심스럽다.

2) 개별용어의 문제

1. *Sittte*의 번역; 백종현은 이제까지 도덕형이상학으로 번역되던 *Metaphysik der Sittte*를 윤리형이상학으로 번역한다. *Sittte*를 굳이 이제까지의 통상적인 번역어였던 도덕이 아니라 윤리로 번역하는 이유는 의미의 상이성 때문이 아니다. 왜냐하면 “칸트가 문맥에 따라 두 낱말 <*Moral*>과 <*Sittte*>를 나누어 사용하고 있어서 그렇지, 칸트에게서 이 양자는 사실상 의미상의 차이는 없다. (...) <*Moral*>은 라틴어 <*mos*>에서 유래했고, <*Ethik*>은 그리스어 <*ethos*>에서 유래했으며,

이 두 낱말과 독일어 고유낱말 <Sitte>는 모두 다 같이 본디 풍속, 습속, 습관 정도를 뜻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칸트의 용어 사용법은 무리가 없다 할 것이다.”⁴⁾ 그러므로 원래 Moral과 동일한 뜻을 가진 Sitte를 이제까지의 일상적인 사용을 무시하고 윤리로 굳이 번역하는 이유는 라틴어와 독일어의 차이를 살려 번역하겠다는 의도이며, 혹은 “유사한 또는 동일한 뜻을 가진 낱말이라 하더라도 칸트 자신이 번갈아 가면서 쓰는 말은 가능한 한 우리말로도 번갈아 쓴다.”(역주 원칙 6)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면 희랍어에서 유래한 Ethik과 Sitte는 왜 구분하지 않고 번역하는가? Ethik의 형용사인 ethisch와 Sitte의 형용사인 sittlich는 동일하게 윤리적이라고 번역하고 있다. 오히려 Moral과 Sitte를 동일하게 ‘도덕’, sittlich, moralisch를 ‘도덕적’이라 번역하는 것이 낫다.

게다가 위의 원칙에 의거하여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Philosophie는 철학으로 Weltweisheit는 세계지혜로 번역하며, Naturlehre는 자연이론으로 Naturwissenschaft는 자연과학으로 Physik은 그것이 좁은 의미에서 물리학으로 번역해야 할 때 이외에 넓은 의미에서 자연(과)학을 의미할 때도 언제나 물리학이라 번역한다(B X. 『윤리형이상학 정초』 B III이하 참고, 『실천이성비판』 A 252에서는 물리학으로 번역하고 [자연학]이라고 부연 설명한다).⁵⁾

2. Ästhetik, Analytik, Dialektik의 번역: 백종현은 감성론, 분석론, 변증론 대신 감성학, 분석학, 변증학으로 번역할 것을 제안한다. 그 이유는 칸트가 Ästetik을 논리학Logik에 맞서서 “선험적 감성 원리들에 대한 학문”으로 규정하며 더 나아가 “또 다른 의미의 감성의 학인 Ästhetik을 미학이라 부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Analytik과 Dialektik을 각기 분석학과 변증학으로 불러야 하는 이유는 일관성을

4) 『실천이성비판』 부록 511쪽.

5) 이러한 문제점을 김수배도 동일하게 지적하고 있다(김수배의 ‘고전번역비평 (51) 임마누엘 칸트 『도덕형이상학 기초』, 교수신문, 2006년 11월 5일).

위해서 그리고 “Analytik이 수학에서는 해석학으로 화학에서는 분석 화학으로 번역되는 사정”을 고려해서이다. 그러나 이러한 번역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감성학의 경우 칸트 자신이 논리학과 대비된 하나의 학문으로 명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받아들일 수 있다 해도, 분석론과 변증론의 경우 논리학의 하위분과에 속하는 것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 체계에서도 범주론, 분석론 전후서등으로 불리고 있기 때문에 수학에서 Analytik이 해석학으로 번역된다고 칸트의 사상이나 초월적 논리학의 체계 내에서도 분석학이라고 불러야 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하나의 학문의 체계에 속하는 하위분과로서 분석론과 변증론이라는 이전의 명칭을 유지하는 것이 낫다.

3. intelligibel, Noumenon의 번역: intelligibilis를 ‘예지적’, 혹은 ‘오성적’이라고 번역하고, Noumenon을 ‘예지세계’ 혹은 ‘예지계’, ‘예지체’로 번역하는 것은 많은 문제를 동반한다. 이처럼 번역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반면에 <예지적[오성적] intelligibel>은 <대상> 내지 <세계>를 수식해주는 말이며, 예컨대 <예지적 대상>이나 <오성적 세계>란 <지성에 의해서만 표상가능한 것>으로, 감각을 매개로 하지 않는 직관 능력이 있다면 — 가령 신적인 — 그런 직관에 의해서나 포착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직관능력이 없으므로 <예지[오성]적인 것>은 오로지 지성을 통해 생각 가능한 것일 따름이다.”⁶⁾ 이런 이유에서 그는 mundus intelligibilis를 예지계 “또는 — 오히려 이 경우야말로 적절한 것이라 할 수 있는 —”⁷⁾ 오성계로 번역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설명에 의하면 지성적인 대상이나 세계를 뜻하는 mundus intelligibilis 혹은 Noumenon을 지성계가 아니라 예지계나 오성계로 번역해야 하는 이유는 이 세계는 우리의 지성에 의해 파악될 수 없으며, 기껏해야 신적 지성에 의해서만 파악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적 직관능력에

6) 『실천이성비판』 515쪽.

7) 같은 책, 514쪽.

상응하는 예지적 능력에 의해 파악된 세계, 즉 예지계이거나 혹은 <오>는 깨닫다 혹은 <깨우쳐준다>라는 뜻을 갖기 때문에 <대오각성하는> 능력을 의미하는⁸⁾ 오성능력에 의해 파악된 세계라는 의미에서 오성계로 번역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수취임논문』에서 mundus intelligibilis는 신적 지성에 의해 파악되는 세계가 아니라 인간 지성에 의해 — 즉 인간 지성의 실제적 사용에 의해 — 파악되는 세계, 즉 지성계이다. 물론 지성계에 대한 인식가능성에 대한 칸트의 입장은 『순수이성비판』에서 변화한다. 이제 그 세계는 인간 지성에 의해 파악될 수 없는 세계이다. 그러나 『순수이성비판』의 변화된 입장을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mundus intelligibilis 혹은 Noumenon을 예지계라고 번역해야 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 비록 『순수이성비판』에서 지성계에 대한 인식이 부정된다 하더라도 『순수이성비판』에서 지성계로 지시되는 세계는 『교수취임논문』에서 지성계로 이해됐던 세계와 동일한 하나의 세계이다. 지성계란 형이상학적 본질의 세계 혹은 사물 자체의 세계이다. 그러므로 이 세계는 현상하는 바대로의 사물의 세계인 감성계과 구분되는, 있는 바대로의 사물 자체의 세계인 지성계일 뿐이다. 만일 세계에 대한 명칭이 — 백종현의 제안처럼 — 세계를 인식하는 주체에 따라 다른 명칭을 가져야 한다면, 『순수이성비판』에서 현상계는 감성적 세계라 불릴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현상계는 단지 감성에 의해 인식되는 세계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지성의 능력이 관여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결코 인식될 수 없는 세계이기 때문이다.

4. Dogmatismus의 번역: 이제까지 독단론(주의)로 번역되던 Dogmatismus는 교조주의로 Dogmatik은 교의학, 교리론, 교조론 등으로 번역할 것을 제안하면서, 그 이유로 “현재도 신학대학에서는 교의학 또는 교의신학을 교수하는데, 이를 두고 독단론이나 독단주의를 가르치고 배운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이미 어느 한편에 서서 비판적

8) 같은 곳.

으로 말하는 것”⁹⁾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언어의 다의성을 완전히 무시한 번역이다. 철학에서 Dogmatik을 독단론이라고 번역한다고, 신학에서도 독단론으로 번역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의 낱말은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신학에서는 그것이 교의론, 혹은 교리학을 의미하지만, 철학의 문맥에서는 독단론의 의미로 통용될 수 있다. 그것은 신학적 정신과 철학적 정신 사이의 상충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게다가 백종현이 애호하는 ‘교조주의’라는 번역어는 독단론과 마찬가지로 이미 부정적인 의미를 함의하고 있다. 그러므로 신학자들은 결코 Dogmatismus를 교조주의라고 번역하지 않을 것이며, 교조주의자란 말을 들으면 독단론자라는 말을 들을 때와 마찬가지로 느낌을 가질 것이다.

5. 다른 용어들의 문제점: Beharrlichkeit를 ‘고정불변성’으로 번역하며(B 224) 원래의 번역어인 지속성은 perdurabile(B 186 참조)라는 라틴어의 번역어로 사용한다. 이것 역시 독일어와 라틴어를 구분하려는 옹긴이의 원칙 때문에 생겨난 문제이다. 또한 이제까지 ‘논증적’이라 번역되던 diskursiv를 ‘논변적’으로 번역한다(예를 들어 B 39 외 다수 구절). 아마 diskursiv가 Diskurs에서 나온 말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듯하다. 그러나 ‘논변적’이 과연 ‘논증적’이라는 번역어보다 더 적합한 것일까? 예취(Antizipation, B 208 등 참조)의 경우 오히려 옹긴이의 제안처럼 선취라는 번역이 더 나을 듯하다.

III. 번역의 절대적 기준이 있는가?

칸트의 원전은 가장 읽기 어려운 글들 중 하나라 할 정도로 난잡한 문체로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칸트 원전을 우리말로 옮기는 일 역시 그리 만만한 일은 아니다. 백종현은 자신의 번역서의 권두에서

9) 『순수이성비판』 8쪽.

번역의 원칙을 일관되게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번역은 학술적 엄밀성을 염두에 두어 직역을 원칙으로 삼고, 가능한 한 원문의 문체, 어투, 문단 나누기 등도 보존하여, 칸트의 글쓰기 스타일이 그대로 보이도록 한다. 현대적 글쓰기에 맞지 않는 부분이나 문단들이라도 의미전달이 아주 어렵지 않은 경우라면 그대로 둔다.”¹⁰⁾ 즉 백종현은 난해한 칸트 원전의 직역을 고수한다. 물론 전문 학술저서의 경우 의역을 권장하기란 쉽지 않다. 번역자의 주관적 해석을 배제한 의역이란 가능하지 않으며, 이 경우 번역서가 아니라 주석서의 모양을 가지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직역이 전문 학술서의 경우 최선책이며 정역은 곧 직역이라 할 수도 없다. 물론 정역의 절대적 기준은 없다. 말하자면 직역과 의역 사이에서 균형감각을 가지는 것이 정역의 왕도라 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균형감각을 가지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도 아니며 무엇이 균형점인가를 판정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적어도 전문학술서의 경우 직역을 우선으로 하되, 우리말의 쓰임에 맞지 않거나 어색한 번역은 피하는 것이 번역의 정도에 가까이 가는 길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리고 이점에서 백종현의 직역을 위주로 하는 번역원칙은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백종현은 직역을 위주로 하는 번역을 위한 원칙들(특히 3~6까지의 네 가지 원칙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번역상의 문제점들은 이처럼 “학술적 엄밀성”을 지키기 위한 원칙에 의해 생겨난 것이다.

예를 들어 옮긴이는 우리말 쓰임새에 맞지 않음에도 칸트의 글쓰기 스타일을 드러내기 위해 가능한 원문의 문체, 어투, 문단 나누기 등을 보존하는 직역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 경우 우리말의 쓰임에 어울리지 않는 문장이나 번역어, 혹은 어색한 어투 때문에 우리말도 독어도 아닌 제3의 언어가 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칸트의 문체가 가지는 고유성은 — 번역서가 아니라 — 독어원전을 통해서 비로소 온전하게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어색한 한자어

10) 모든 번역서의 역주의 원칙 3번 참고.

들은 “라틴어나 희랍어의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한자말을 찾아” 내려는 원칙에 의해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Dialektik의 경우 변증성으로 번역되어야 할 구절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본문에서는 시종일관 변증학으로 번역하는 것이나 Physik의 경우, 문맥에 따라 물리학이나 자연학으로 번역해야 하지만 물리학으로 일관되게 번역하는 경우는 “다소 어색함이 있더라도, 칸트의 동일한 용어에는 동일한 우리말을 대응시키려는 원칙”에 의한 것이다. 물론 옹긴이는 곳곳에서 변증학(성) 혹은 물리학[자연학]이라고 표시함으로써 ()나 [] 등을 통해 의미변화가 있음을 인정한다. 이것은 하나의 낱말이 고정적으로 한 용어로 대응 번역될 수 없는 다의성을 지니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하나의 낱말을 되도록 하나의 용어로 번역하려는 원칙을 고수하는 모순된 태도를 반영한다. 또는 “유사한 또는 동일한 뜻을 가진 낱말이라 하더라도 칸트 자신이 번갈아 가면서 쓰는 말은 가능한 우리말로도 번갈아” 쓰려는 원칙에 의해 Sitte를 Moral과 구분하여 윤리로 번역한다. 그러나 이것은 원칙 때문에 용어의 올바른 의미를 담아내지 못한 경우이다.

이 모든 예들은 “학술적 엄밀함”을 지키려다 학술적 엄밀함이 훼손된 사례들이다. 칸트의 표현방식이나 용어사용에 우리말을 꿰맞추려는 노력에서 나온 안타까운 경우라 아니할 수 없다. 우리말을 칸트의 글쓰기에 전적으로 종속시키기보다 오히려 우리말이 중심이 되어 그 속에서 칸트의 사상을 담기에 적절한 용어나 문체를 취사선택했다면 이런 문제들을 줄일 수 있었으리라 생각한다.

IV. 나가면서

번역은 낯선 언어체계로 표현된 사상을 친숙한 우리의 언어체계 안으로 수용하는 작업이며, 낯선 사상 체계를 우리 사상의 문맥 속으로 용해시키는 작업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서양철학의 원전 번역은

가능한 한 우리말과 우리 생각의 울타리 내에서 번역하는 것이 올바른 일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낯선 생각의 체계를 받아들일 우리의 것, 즉 우리의 중심(우리말로 된 우리의 사상)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낯선 사상체계를 연구하고 번역하는 작업은 주인 없는 집에 객이 와서 큰소리치는 그런 형국이 되기 십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번역자는 번역작업이 서양 사상을 서양의 연구전통의 맥락에서 서양인의 시각에서 마치 서양 사람처럼 연구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시각에서 그들의 사상을 연구하기 위한 기초 작업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토착화된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번역이 완성되려면 모든 번역은 우선적으로 우리말의 용법에 맞고, 우리의 어감에 맞으면서 우리의 일상적인 말의 흐름에 들어맞는 그런 번역이어야 하겠다는 평소의 생각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서평자 스스로 번역을 하면서 이러한 기준을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실감할 수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남의 번역을 문제 삼는 일이 얼마나 낮간지러운 일이지 모르겠다. 자기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의 티끌을 탓하는 것 같아 부끄럽지만, 우리 철학계의 번역문화가 보다 진전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마친다.

